

2015 / 06 / 24 (WED)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1%대 상승세.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 가능성 확대되며 투심 호전. 삼성전자가 외인의 매수세로 3%이상 상승하는 등 대형 IT주들이 지수상승 견인. 부품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강세.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엔씨소프트, 다우기술, 삼성테크윈 강세. 반면 동반 매도세가 나타난 LG디스플레이 약세.

종목별로는 2~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형성되면서 엔씨소프트가 8.6% 상승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412.14	1.2%	-5.4%	689 억	-136 억
KRX Semicon	1,960.31	0.5%	4.5%	948 억	-99 억
(코) 반도체	1,011.44	-0.1%	26.9%	-68 억	-10 억
(코) IT H/W	418.57	0.6%	20.1%	-66 억	-44 억
(코) IT S/W	2,231.75	0.3%	11.6%	-6 억	46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321,000	3.1%	-0.5%	1,010 억	-200 억
LG전자	50,800	-1.6%	-14.0%	-154 억	-33 억
삼성SDI	119,000	1.7%	2.6%	29 억	23 억
삼성테크윈	32,700	4.5%	37.1%	9 억	20 억
서울반도체	16,700	-0.6%	-17.3%	-6 억	-3 억
신도리코	66,300	0.6%	-2.2%	0 억	0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4,150	0.7%	-7.5%	-335 억	99 억
이오테크닉스	95,000	-1.5%	-24.2%	-13 억	7 억
월익IPS	15,500	-4.0%	11.1%	-35 억	-11 억
리노공업	50,000	2.6%	30.5%	2 억	10 억
유진테크	17,700	-1.4%	9.6%	0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0,500	1.6%	-11.2%	-20 억	-7 억
SK C&C	274,500	-2.5%	28.6%	23 억	-51 억
포스코 ICT	5,150	0.4%	-2.8%	1 억	-1 억
다우기술	19,650	7.4%	64.4%	2 억	42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40,000	1.4%	-10.1%	35 억	57 억
다음카카오	107,000	0.4%	-13.4%	-21 억	-2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5,250	-4.7%	-25.0%	-236 억	-140 억
에스에프에이	49,900	-1.2%	0.5%	-13 억	14 억
솔브레인	49,950	-0.1%	55.4%	-1 억	3 억
덕산하이메탈	8,030	0.0%	-28.0%	0 억	0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3,400	3.1%	-2.4%	30 억	-13 억
LG이노텍	110,500	1.4%	-1.8%	49 억	11 억
파트론	8,640	1.9%	-26.5%	-10 억	1 억
루멘스	4,790	0.2%	-32.1%	0 억	-2 억
일진디스플레이	9,670	6.6%	41.8%	1 억	7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01,000	8.6%	10.4%	-34 억	78 억
컴투스	134,900	-2.0%	1.5%	-23 억	32 억
NHN엔터테인먼트	58,300	1.2%	-33.4%	-16 억	-5 억
게임빌	91,200	-0.9%	-24.4%	3 억	-4 억
위메이드	38,850	-0.4%	2.8%	-7 억	-10 억
선데이토즈	17,100	-0.6%	-0.6%	-3 억	1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2,500	-2.4%	424.8%	-9 억	12 억
한글과컴퓨터	17,700	1.4%	-12.4%	0 억	2 억
코나아이	32,650	0.9%	-3.1%	1 억	-5 억
슈프리카	22,450	3.5%	-11.8%	5 억	0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4.35	0.1%	5.0%
MSCI Internet	164.88	1.1%	7.9%
MSCI Software	170.73	-0.1%	4.4%
MSCI Semicon	223.19	-0.3%	1.4%
MSCI IT Services	126.07	0.0%	7.1%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7.52	-0.4%	5.1%
Facebook	82.51	-2.6%	5.8%
Tencent	154.20	-1.8%	37.1%
Baidu	210.87	0.6%	-7.5%
Yahoo	40.51	-0.5%	-19.8%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6.10	-0.3%	-0.8%
Oracle	41.59	0.2%	-7.5%
SAP	72.66	-2.9%	4.3%
EMC	27.07	-0.8%	-9.0%
Symantec	24.07	1.0%	-6.2%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03	-0.5%	15.1%
Nokia	7.19	-1.5%	-8.5%
Lenovo	11.32	0.4%	11.0%
ZTE	19.70	-5.1%	17.0%
HTC	80.3	3.1%	-43.5%

Semicon

	close	1D	YTD
Intel	32.07	-0.6%	-11.6%
Qualcomm	66.88	-0.7%	-10.0%
Texas Instruments	54.51	-1.8%	2.0%
Micron	24.49	-0.6%	-30.0%
Toshiba	430	0.9%	-16.1%
Renesas	930	-1.4%	13.0%
STMicro	8.40	1.2%	12.4%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8.62	0.5%	5.1%
HP	31.80	0.3%	-20.8%
Accenture	97.02	-1.6%	8.6%
Fujitsu	738	1.9%	14.5%
NTT Data	5,250	-0.8%	16.3%
CSC	67.71	0.4%	7.4%

Hardware

	close	1D	YTD
GE	27.24	-0.7%	7.8%
Panasonic	1,782	3.9%	24.8%
SONY	3,657	-2.0%	47.9%
Whirlpool	185.26	0.2%	-4.4%
Electrolux	271.90	-0.7%	18.8%
Haier	21.20	0.5%	14.8%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010	0.0%	58.6%
KYOCERA	6,605	2.8%	18.9%
Nidec	9,346	2.4%	19.0%
TDK	10,250	1.5%	43.2%
Ibiden	2,120	0.1%	18.6%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3	-1.8%	-39.2%
Japan Display	509	-1.0%	37.6%
AUO	4.67	-2.1%	-8.3%
Innolux	16.45	-1.8%	6.8%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1,010 억	SK하이닉스	-335 억
LG이노텍	49 억	LG디스플레이	-236 억
NAVER	35 억	LG전자	-154 억
삼성전기	30 억	월익IPS	-35 억
삼성SDI	29 억	엔씨소프트	-34 억
아프리카TV	26 억	컴투스	-23 억
SK C&C	23 억	다음카카오	-21 억
안랩	22 억	삼성에스디에	-20 억
엠씨넥스	13 억	NHN엔터	-16 억
크루셜텍	13 억	이오테크닉스	-13 억
블루콤	11 억	에스에프에이	-13 억
바른손이앤에	9 억	실리콘웍스	-11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SK하이닉스	99 억	삼성전자	-200 억
엔씨소프트	78 억	LG디스플레이	-140 억
NAVER	57 억	SK C&C	-51 억
다우기술	42 억	LG전자	-33 억
컴투스	32 억	KH바텍	-24 억
KG이니시스	27 억	아프리카TV	-22 억
삼성SDI	23 억	LS산전	-15 억
삼성테크윈	20 억	LS	-13 억
월익머트리얼	14 억	유니칩	-13 억
에스에프에이	14 억	삼성전기	-13 억
골프존	12 억	월익IPS	-11 억
LG이노텍	11 억	ISC	-11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854.12	-0.2%	-9.7%
DDR3 2Gb (Spot)	1.54 \$	-1.3%	-30.3%
NAND 64Gb (Spot)	2.64 \$	0.0%	9.1%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엔씨소프트	8.6%	실적전망

News & Issue

엔씨소프트, 분기 실적 바닥 지났다

엔씨소프트의 2~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형성되며 등 분기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에 강세. 2분기 영업이익은 620억원으로 예상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고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 지난해 2분기 신작 게임 와일드스타가 출시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리니지 아이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견조한 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86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분기 대비 39% 증가한 금액. 특히 8월부터 길드워 2 확장팩 출시에 따른 신규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길드워2 확장팩을 200만장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1,000억원의 매출이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작 리니지 이터널은 이번주부터 FGT(focus group test)를 시작. 이어 연말에 CBT를 진행하고 내년 4분기에 상용화될 전망이다. B&S모바일은 3분기 텐센트 통해 중국 상용화될 전망이다. AION레기온즈 모바일은 3분기 국내에서 상용화될 계획. 넷마블 지분 인수로 연간 지분법 이익이 160억원 가량 추가될 것이며 분기 실적이 바닥을 지났고 모바일 MMORPG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LG디스플레이	-4.7%	실적전망

News & Issue

LG디스플레이, 하반기 LCD TV 수요 불확실성 증가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 LCD TV 수요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디스플레이 공급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일부 TV 패널의 가격 조정과 아이폰 수요 둔화에 따른 출하량 감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신규 출시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2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됨.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1% 감소한 4,410억원으로 예상됨.

LCD TV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TV 패널 가격 하락 우려로 최근 LG디스플레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 1분기 LCD TV 판매량은 5,541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지만, 개선세는 다소 둔화.

하반기에도 LCD TV 판매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디스플레이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LCD TV 판매 업체들이 올해 1분기 수요 둔화로 악화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신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판매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패널가격

News & Issue

6월 하반기, LCD 패널 가격 하락폭 확대

6월 하반기 LCD 패널 가격은 40인치 TV패널 일부를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하락폭 확대. 올 3분기 패널 가격 상승 반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지난 6월 22일, 시장 조사 기관인 Witsview 6월 하반기 LCD 패널 가격 발표. 주요 LCD 패널 평균 가격은 6월 상반기 대비 -0.9% 하락한 92달러 기록. TV 패널의 평균 가격은 6월 상반기 대비 -0.6% 하락한 167달러 기록. 지난 6월 상반기와 동일한 가격 흐름 유지. 특히 40인치와 42인치 패널 가격은 각각 6개월, 12개월째 포함 중

모니터 패널의 평균 가격은 6월 상반기 대비 -1.5% 하락한 73달러 기록. 전 사이즈 가격 하락폭 확대. 노트북 패널의 평균 가격은 6월 상반기 대비 -1.1% 하락한 37달러 기록. 주력 사이즈인 14인치와 15.6인치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

TV패널의 경우 가격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TV패널 수요가 지연됨에 따라 패널의 초과공급이 전망되기 때문.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 폭이 클 전망이다. 참고로 당사는 세트업체의 패널 구매전략이 보수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며, TV산업 내 계절적 비수기인 3분기 중순까지는 가격 하락세 지속 전망

IT패널(모니터+노트북)의 경우 신규 생산설비 가동으로 공급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가격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현재 윈도우10과 인텔 스카이레이크 대기 수요는 일부분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 반면 당사는 전반적인 IT수요 부진으로 인한 세트업체 간 경쟁강도 약화를 전망하는 바 패널 수요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패널 가격 하락폭 확대, 수요 증가 둔화 등 LCD 업황부진의 징후들이 지속 발생 중에 있는 상황. 따라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긍정적 View 제시는 제한적인 상황.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업황 약화로 LG디스플레이 실적전망의 가시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주가반등을 주도할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현재 역사적 PBR 밴드 저점에서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중장기적 관점에서 OLED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매수기회라고 판단됨.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이오테크닉	-1.5%	실적전망

이오테크닉스, 2Q 실적 부진 예상

이오테크닉스의 2Q15 영업이익은 8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지만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 주요 고객사들의 장비 발주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 Laser Annealing, Laser Wafer Dicing 등 시장에서 기대하는 동사의 신규 장비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

2Q15 실적은 매출액 625억원(3% QoQ), 영업이익 80억원(13% QoQ), 순이익 59억원(-15% QoQ)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센서스인 110 억원을 33% 하회할 것으로 예상.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은 대만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 발주 모멘텀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또한 일부 매출 반영이 3Q로 지연됨.

최근 동사의 주력 매출 제품인 레이저 마커와 기타 후공정 장비들의 수주와 매출이 부진함. 요인은 주요 고객인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 Capex 를 작년 대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 TSMC 는 1Q15 실적 컨콜에서 올해 Capex 를 기존 가이던스 대비 \$1b 줄인 \$10.5~11b 로 제시. 투자는 16nm/10nm 공정 개발에 집중하고 Capa 증가 투자는 최소화하겠다고 언급.

후공정 업체인 SPIL 과 ASE도 전년 대비 감소하는 Capex 가이던스를 제시. SPIL은 2015년 Capex를 US\$386m 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제시. 2014년은 Apple AP 생산 수주 등을 통해서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의 Capa 투자가 많았으나, 올해는 관련된 모멘텀이 감소. 중국 로컬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대만, 중국 반도체 후공정 장비 투자가 부진한 것에 영향.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올해 시설투자 계획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끈 분야는 파운드리 분야. 순수 파운드리 시장은 업계 1위인 TSMC를 비롯해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반도체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 시설은 크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존 파운드리 시장의 강자들은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는 현재 호황기. 전체 반도체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 시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 업계에선 이를 '팹 라이트(fab lite)' 경향이라고 부름. 기존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생산 시설은 줄이는 대신 파운드리 업체를 통한 위탁 생산을 늘리고 있음.

한 예로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파운드리 의존도를 확대한 바 있음. 독일 인피니언도 자사의 40나노 임베디드 플래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공정 기술을 글로벌 파운드리(GF)에 제공한 뒤 이 회사를 통한 칩 위탁생산을 늘리고 있는 중.

고성능 모바일 시스템온칩(SoC)을 다루는 대부분의 회사가 모두 팹리스(fabless)라는 점도 파운드리 업계의 성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범용 모바일 SoC를 다루는 퀄컴은 물론, 애플 역시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에 탑재되는 A 시리즈 SoC를 전량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산하고 있음.

고성능 시스템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인텔과 삼성전자 정도 밖에 없음.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인텔과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형 종합반도체(IDM) 업체가 추가로 생겨나긴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최신 반도체 생산 공장을 하나 짓는 데 드는 비용이 1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 공정 미세화의 어려움으로 이 같은 설비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4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2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2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